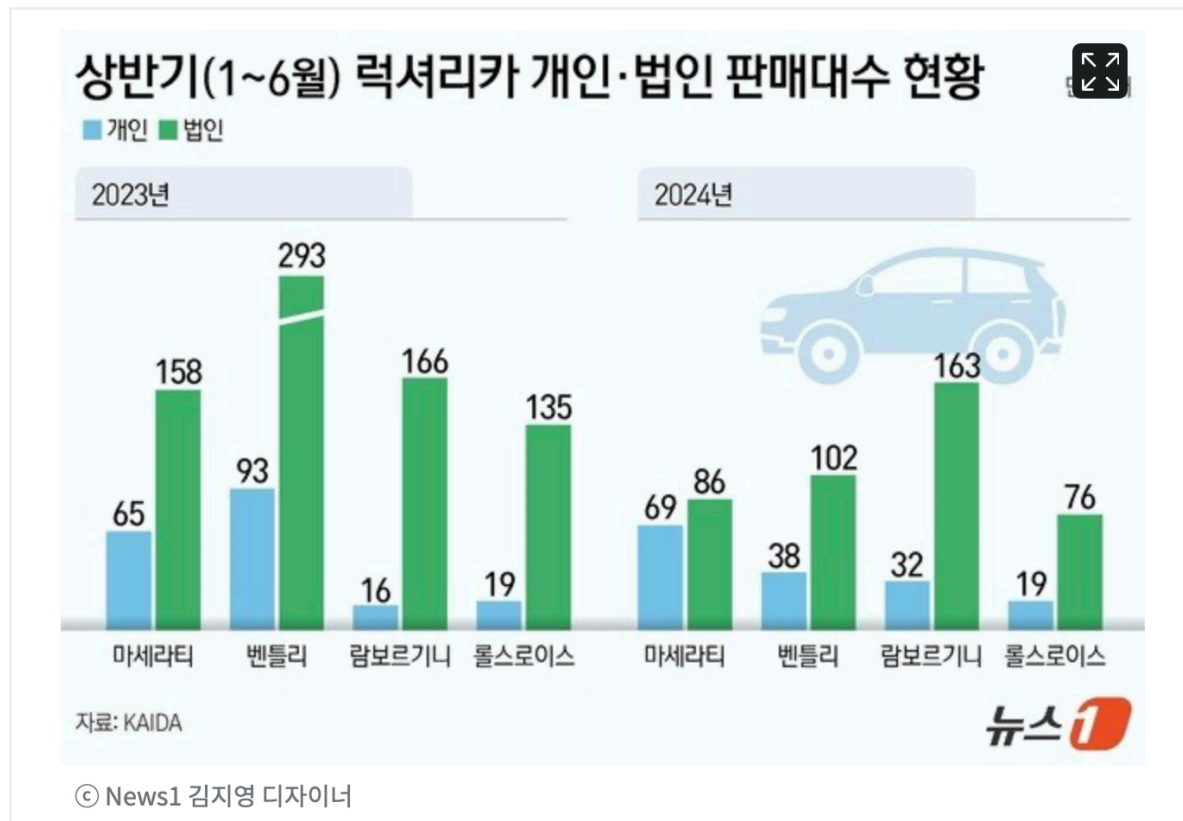


2023 / 2024 비교



<https://www.news1.kr/industry/auto-industry/5477629>

연두색 번호판 시행 두 달... '차종·브랜드·가격대' 엇갈린 명암

박성호 기자

세단·수퍼카 등 일부 차종별 법인 판매 감소

BMW 등 일부 브랜드 판매는 되려 증가세

"나중엔 과시 상징될수도"...제도 악용 우려

<http://www.eb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15549>